

신정아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소명 부족·도주 우려 없어”...신씨 귀가

신정아(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밤 검찰이 신씨에 대해 업무 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 4가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기각사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신씨는 이날 밤 귀가했

다. 이에 앞서 앞서 신씨는 구속을 각오한 듯 이날밤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 전국을 회오리속에 몰아넣은 신정아씨 학위위조 사건에서 장본인인 신씨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크게 당황하고 있으며,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4가지 혐의는 예일대 가짜 박사학위 관련 자

료를 만들어(사문서 위조)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에 제출하고(행사), 이를 통해 동국대의 교수로 임용돼 동국대의 정상적인 인사행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공무원조직인 광주비엔날레의 예술감독에 부당하게 임용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말하는 것으로 모두 예일대 가짜 박사학위를 통한 교수 및 예술 감독 임용과 관련된 혐의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2순환도 완전 개통 광주시 북구 각화동 제2순환도로 노선 중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각화 IC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37km 구간이 18일 개통됐다. 이로써 지난 1992년 착공된 제2순환도로(37.66km) 전 노선이 15년만에 완전히 연결돼 광주시 기간교통망 체계 구축에 한 획을 그게됐다. 개통식은 신철 구간의 상징물로 사정교인 '문화대교'에서 이날 오후 열렸다. >관련기사 8면 /나명주기자 mjna@

64억 갑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니...

구멍 뚫린 ‘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또는 자신이 수십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지원 대상자 검증이 허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지역 시·군·구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2006년에만 8천여 가구가 자산·소득 보유 사실이 드러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수급자 중 해외여행을 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실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6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나주시 공산면 양모씨의 경우

부양의무를 진 손자가 무려 64억원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지원이 중단됐다. 여수시 동문동 김모씨는 4억여원의 자산을 갖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말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 광산구 김모씨는 4억7천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로 지정돼 지원금을 받았다. 금융기관 조회 결과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로 드러나 보장증지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적으로 2005년 1천620가구에서 2006년에는 2만2천431가구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과 소비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해외여행기록을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2007년 3월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1만6천931명이 해외출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이 새로 드러나 수급자에서 중단되는 경우도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는 2006년에만 기초생활수급자 2만9천175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펴, 이중 5천24가구를 부정수급자로 적발, 지원을 중단했다. 탈락자의 90% 이상은 자신이나 가족

의 취업 등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했으나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靑 정책실장 성경룡씨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새 청와대 정책실장에 성경룡(5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발탁했다고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프로필 5면> 성경룡 정책실장 내정자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림대 사회과학부 교수 출신으로 참여정부 초기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특화 산업 발전 전략 등 참여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주도해왔다. 청와대는 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인선에 들어가 조만간 후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협뉴스

유일대입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中정부 ‘흑피옥’ 발굴 나선다

유물 확인차 곧 광주 방문...진품엔 공개 발굴



김씨가 수집한 흑피옥 조각상 중 '태양관을 쓴 여신상'(왼쪽·22cm)과 '태양관을 쓴 남신상'(20.2cm)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출신 고유물 수집가 김희용(59·광주시 북구 매곡동)씨가 중국 대륙에서 수집, 발굴한 흑피옥(黑皮玉) 조각상(본보 9월1일자 1면·4일자 15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실체를 확인하고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15면> 특히 중국 정부와 학계는 흑피옥 조각상이 고고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데다 빼어난 조형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김씨가 수집한 것만 500여점에 달한다는 점 때문에 유물의 역사적 가치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흑피옥을 수집·발굴한 김씨의 한 측근은 18일 “중국 문화부 관계자가 빠른 시일안에 광주를 방문, 김씨가 보관중인 유물을 육안 확인한 뒤 발굴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측근에 따르면 문화부 문화시장사 관공실 왕홍(王宏) 주임은 “문화부 관리와 전문가를 김씨 집에 보내 유물의 진위를 가린 뒤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며 “진품으로 확인될 경우 김씨의 요구대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학자 등으로 발굴단을 구성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발굴방침을 밝힘에 따라 ‘흑피옥 조각상이 중국 고대문화의 하나인 홍산문화(紅山文化·BC 4000~BC 3000년) 이전시대의 유물’이라는 김씨의 주장은 물론 유물의 진위여부가 중국 고고학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장닝(張寧) 전 수도박물관 상임부관장은 “흑피옥 조각상이 진짜 고대 유물로 확인된다면 인류역사를 다시 써야할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반드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골동품 시장에서 고대 유물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진위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일부 학자도 있다. 관창(關強) 국가문화유산보존연구소 부소장은 “사레가 드물기는 하지만 현재도 흑피옥 조각상이 판매되고 있는 데다 진위논란이 많은 만큼 학계에서 반드시 연구해야할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물 수집가인 김씨는 지난 1990년부터 16년간 내몽고 지역에서 ‘흑피옥(黑皮玉)’으로 불리는 조각상 500여점을 발굴·수집, 지난해 12월 본보에 공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BE > THINK > INNOVATE

GRUNDFOS

“It works like magic”

차세대 부스터 펌프 시스템, 그룬포스 Hydro MPC

인터넛된 있으면 권거리에서 실시간으로 밀대일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최초의 원격지 제어 부스터 시스템, 그룬포스 Hydro MPC!

그룬포스 Hydro MPC를 설치하는 그 순간, 언제 어디서나 당신은 한국어로 부스터 시스템을 마법처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국그룬포스펌프(주) www.grundfos.co.kr 본사 : 02-531-7510 / 공장 및 A/S : 043-535-3110 / 호남영업부 : 052-333-3341

Hydro MPC
마술같은 인터넷 부스터 펌프